

1. 효(孝)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?

- ① 斑衣之戲 ② 斷機之戒
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

2.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의 관계(synonymy) - 근심 : 시름
② 반의 관계(antonymy) - 불록 : 오목
③ 상하 관계(hyponymy) - 할아버지 : 손자
④ 부분 관계(meronymy) - 코 : 얼굴

3. <보기>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?

—<보기>—

교체, 탈락, 축약,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. 먼저 ㉠ ‘집일[짐닐]’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. 그런데 ㉡ ‘닭만[당만]’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, ㉢ ‘뜻하다[뜨타다]’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. 한편 ㉣ ‘말는[만는]’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.

- ① ㉠ ② ㉡
③ ㉢ ④ ㉣

4.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?

-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.
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.
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.
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.

5. <보기>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,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

—<보기>—

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, 객체 높임법, 상대 높임법이 있다.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(예)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‘+’와 ‘-’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.

(예)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.
(-주체, -객체, +상대)

-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.
(+주체, -객체, -상대)
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.
(-주체, +객체, +상대)
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.
(+주체, -객체, +상대)
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.
(+주체, +객체, +상대)

6. <보기>는 두보의 시 「곡강(曲江)」의 일부이다. ()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?

—<보기>—

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,
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.
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,
인생 ()은 예로부터 드물구나.
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,
물 위로 풍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.
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,
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.

- ① 오십 ② 육십
③ 칠십 ④ 팔십

7. <보기>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—<보기>—

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.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.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,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.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.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, 무게, 부피,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,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.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.

-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.
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.
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.
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.

8.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?

- ① 파김치 ② 짜임새
③ 주름살 ④ 지름길

9. ‘欲速則不達, 見小利則大事不成’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?

- ① 첫술에 배부르랴.
② 내 코가 석 자다.
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.
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 쓴다.

10. <보기>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?

—<보기>—

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
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
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
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.

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
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
있었다.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.
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. 다만
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. 그동안에
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
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.

- ① 사소함
- ② 괴로움
- ③ 기다림
- ④ 생각함

11. <보기>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?

—<보기>—

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
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.

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.
나도 돌아선다.

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.
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.

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
개나리가 망울졌다.

- ① 김승옥의 『무진기행』
- ② 황석영의 『삼포가는 길』
- ③ 이문구의 『우리동네 김씨』
- ④ 황순원의 『나무들 비탈에 서다』

12.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?

- ① 손쉽다
- ② 맛나다
- ③ 시름없다
- ④ 남다르다

13. <보기>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—<보기>—

(가) 雨歇長堤草色多
送君南浦動悲歌
大同江水何時盡
別淚年年添綠波

(나) 생사의 길은 /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/ 나는 간다는
말도 / 못다 이르고 가느냐 /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
/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/ 한 가지에 나고
서도 /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/ 아으, 미타찰(彌陀刹)
에 만날 나 / 도(道) 닦아 기다리리.

(다) 翩翩黃鳥
雌雄相依
念我之獨
誰其與歸

(라) 이화우(梨花雨)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(離別) 혼 님
추풍(秋風) 낙엽(落葉)에 저도 날 생각는가
천리(千里)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

- ① (가) - (다) - (나) - (라)
- ② (가) - (다) - (라) - (나)
- ③ (다) - (가) - (나) - (라)
- ④ (다) - (나) - (가) - (라)

14. <보기>를 참고할 때,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—<보기>—

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
수 있다.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
말하며,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
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.

(가) 알-: 알+는 → [아:는]
(나) 안-: 안+고 → [안:꼬]
(다) 아릅답-: 아릅답+은 → [아름다운]
(라) 먹-: 먹+는 → [멍는]

- ① (가)는 국어에 ‘ㄹ’과 ‘ㄴ’이 연속될 때 ‘ㄹㄴ’이 함께
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
어간의 종성 ‘ㄹ’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.
- ② (나)는 국어에 ‘ㄴ’과 ‘ㄱ’이 연속될 때 ‘ㄱ’이 경음으로
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‘-고’는
[꼬]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.
- ③ (다)는 국어에 ‘ㅂ’과 ‘은’이 연속될 때 ‘ㅂ은’이 아니라
[운]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‘-은’이
[운]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.
- ④ (라)는 국어에 ‘ㄱ’과 ‘ㄴ’이 연속될 때 ‘ㄱ’이 비음
‘ㅇ’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
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.

15. <보기>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—<보기>—

“양우(兩友)의 말이 불가하다. 진주 열 그릇이나 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. 재단(裁斷)에 능소능대(能小能大)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(作衣)를 어찌하리오.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.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.”

- ① 서술자는 ‘세요 각시’, 즉 ‘바늘’이다.
-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.
- ③ ‘능소능대(能小能大)’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‘척 부인’과 ‘교두 각시’는 각각 ‘자’와 ‘인두’를 가리킨다.

16. <보기>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.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—<보기>—

- (가) 내가 책을 읽었다.
- (나)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.
- (다) 우리가 산을 뽐니다.
- (라)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.

-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.
-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.
-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.
-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.

17. <보기>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.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—<보기>—

- (가) 늑: ‘사람평칭’ → ‘남자의 비칭’
- (나) 겨레: ‘종친, 친척’ → ‘민족, 동족’
- (다) 아침밥 > 아침
- (라) 맞비 > 장맛비

- ① (가)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.
- ② (나)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.
- ③ (다)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.
- ④ (라)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.

18.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?

-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?
-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.
-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.
-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.

19.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—<보기>—

자내 상해 ㉠ 날드려 닐오되 둘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의 죽자 흐시더니 엇디흐야 나를 두고 자내 묻져 가시는 날흐고 즈식흐며 뉘 괴결흐야 엇디흐야 살라 흐야 다 더디고 자내 묻져 가시논고 자내 날 향히 므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㉡ 향히 므으물 엇디 가지던고 므양 자내드려 내 닐오되 흐되 누어서 이 보소 님도 우리ㄴ티 서르 예엿쎄 녀겨 스랑흐리 님도 우리 ㄴ튼가 흐야 자내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 싱각디 ㉢ 아녀 나를 브리고 묻져 가시논고 자내 ㉣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 흐되 가고져 흐니 날 드려 가소

- ① ㉠ 나를 따라서
- ② ㉡ 향하여
- ③ ㉢ 아니하여
- ④ ㉣ 여의고

20. <보기>의 ㉠~㉣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?

—<보기>—

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. (㉠)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. ‘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’는 스토리이지만, ‘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’는 (㉠) (이)다.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. 또한 ‘왕비가 죽었다.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’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(㉠) (이)며,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.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.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‘(㉡)’하고 물을 것이며, (㉠)의 경우엔 ‘(㉢)’하고 물을 것이다.

- | | ㉠ | ㉡ | ㉢ |
|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① | 플롯(plot) | 왜? | 그 다음엔? |
| ② | 플롯(plot) | 그 다음엔? | 왜? |
| ③ | 테마(theme) | 언제? | 왜? |
| ④ | 테마(theme) | 그 다음엔? | 왜? |

이 면은 여백입니다.